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바뤼흐 스피노자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